

지역 매 아리

'챌린지 100° C' 일냈다

성덕면, 마을환경지킴이

참여자 교육 실시

김제시 성덕면(면장 서상원)은 24일 성덕면사무소 앞에 있는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마을환경지킴이 참여자 28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

마을환경지킴이는 올해 3월부터 마을별 환경지킴이를 지정·운영해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해 분리수거를 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깨끗한 김제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환경과 장욱현 청소행정담당이 참석해 분리배출 현 실태와 필요성,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불법소각 행위 대처 등 환경지킴이 활동 요령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과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3개월 동안 마을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점 및 건의사항 등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서상원 성덕면장은 "깨끗한 성덕면 만들기 위해 노고 많으신 마을 환경지킴이 참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업기간 동안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건강하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미래세대들의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를 실시한다.

완주군은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관내 초(4~6)·중·고 학생 2500여명을 대상으로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9년 통계청·행안부·지자체 협업으로 추진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사업 공모로 선정돼 올해 처음 실시하는 조사통계다.

완주군은 청소년의 현재 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군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출산부터 아동·청소년까지 미래세대 육성' 분야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가족 및 친구 관계, 건강, 학습·진로, 여가·활동, 안전·행동, 물질적 수준 및 동네환경, 주관적 행복감, 아동·청소년의 권리, 군 특성항목, 일반사항 등 10개 분야 49개 항목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표를 배부한 후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응답자기기입) 방법으로 진행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행안부 공모 3개 사업 동시다발 선정 쾌거

특교세 1억4천여만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투입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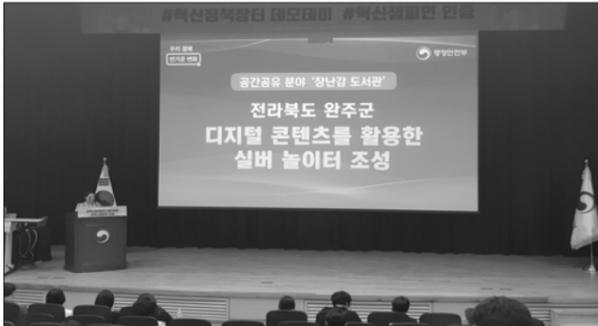
완주군 정책연구모임 출범 2개월 만에 신규 공무원들로 구성된 완주군 정책연구모임인 '완주 챌린지 100° C'가 창의행정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 챌린지 100° C'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8개 사업을 응모한 결과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실버 놀이터 조성'과 '로컬푸드로 채운 나눔냉장고', '삼례 원후정마을 안심가로등 골목길 조성' 등 3개 사업이 한꺼번에 선정되는 결실을 일궈냈다.

이번 정책연구모임의 성과는 전국 54개 기초단체에서 73개 사업이 선정돼 평균 1.3개에 만족한 것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되는 것이며, 응모한 기초단체 중에선 최다 기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내기 공무원들이 연구모임 출범식(4월 23일)을 갖고 정책연구에 나선 지 불과 2개월 만에 거둔 열매이어서 의미를 더해준다.

완주군은 행안부 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1억4천842만원을 확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사례 확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실버 놀이터 조성' 사업은 고령화 추세로 인한



완주군 정책연구모임 '완주 챌린지 100° C'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8개 사업을 응모한 결과 3개 사업이 선정됐다.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농촌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특교세 1억원을 확보, 농촌 어르신들에게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여가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로컬푸드로 채운 나눔냉장고'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안에 로컬푸드 무인 판매대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천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또 '삼례 원후정마을 안심가로등 골목길 조성'은 2천만 원의 확보 예산을 들여 어두운 골목길에 안심가로등을 설치하고 주민 모니터링단이 지속 관리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를 깜짝 놀라게 한 '완주 챌린지 100° C'의 성과는 박성일 완주군수의 관심과 지원에 멘토와 멘티의 협업, 치열한 분임토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젊은 공직자들의 열정이 더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완주=이종복 기자

“타기관 진출 시 인사부서 사전협의 기준 강화”

박준배 김제시장, 제228회 김제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김복남 의원, 오상민 의원, 이병철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하고 민선7기 출범이후 시민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 국가예산 7031억원 확보,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된 56개 공모사업 선정, 외부기관 평가 36개 수상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의회의 변함없는 협력을 당부했다.

먼저 김복남 의원이 질문한 시 인사행정 관련,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최소 전보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취임 후 다소 여러 차례 시행되는 크고 작은 인사는 조직의 안정을 위한 과정임을 설명했다.

더불어 타기관 진출 시 인사부서 사

전협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기구 국(局) 추가 관련해서는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수변공원 아간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용 조형물이 설치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후 조형물 폐쇄나 이전 설치 등은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상민 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평선산업단지 정책방향에 대해 근로자 관내 거주 유도를 위해 출·퇴근 버스 운행, 기숙사 임차료 지원, 공동주택용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단 내 가동 중인 업체 중 확인 가능한 16개 업체의 세금 납부 현황 조사결과 지방소득세 등 57억원의

세수가 증대되었음을 강조하며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KTX 혁신역 신설 관련해서는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지역 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미묘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우선적으로 김제 최대 현안이자 시민의 염원인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실현을 위해 정지권 및 정부 관계기관에 당위성을 수차례 설명하고 범시민 결의대회를 전개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 이병철 의원의 '하이패스 전용 새김제 나들목' 개설에 대해 주요 정책 의제로 채택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주민자치 업무진단, 주민자치협의체 구성, 주민자치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는 '24일 지평선어울림센터에서 김제시 사회복지연합실습' 개강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연합실습' 개강식

김제시, 총 11개 기관 협력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병철)는 24일 지평선어울림센터에서 각 지역 12개 대학에서 모인 29명의 예비사회복지사들, 연합실습에 참여하는 7개소 기관·시설의 기관장 및 관계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9년 김제시 사회복지연합실습' 개강식을 개최했다.

24일 개강을 시작으로 4주간(160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김제시 사회복지연합실습'은 2013년 5개 기관·시설 연합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7개소 기관·시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습생 자신의 능력, 한계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인식을 통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시설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에는 주최 기관인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주관 기관

으로 김보른종합사회복지관, 김제병철)는 24일 지평선어울림센터에서 각 지역 12개 대학에서 모인 29명의 예비사회복지사들, 연합실습에 참여하는 7개소 기관·시설의 기관장 및 관계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9년 김제시 사회복지연합실습' 개강식을 개최했다.

24일 개강을 시작으로 4주간(160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김제시 사회복지연합실습'은 2013년 5개 기관·시설 연합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7개소 기관·시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습생 자신의 능력, 한계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인식을 통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시설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에는 주최 기관인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주관 기관

청하면, 입석산 둘레길 조성

김제시 청하면 둘레길 추진위원회는 청하면 신금마을에 있는 입석산 둘레길 조성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24일 오전 10시 둘레길 입구에서 개장식을 가졌다.

둘레길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둘레길은 총 1.5km의 산책로로서 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 2억 원을 투자해 조성했다.

둘레길은 청하면 신금마을을 시점으로 만경읍 파광과개로 이어져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기구,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입석산 둘레길을 가기 위해서는 청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약 1.5km 이동하여 신금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된다.

둘레길 입구에서 종점부까지 약 30분 소요되며 둘레길 이용객들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추천한다.

둘레길 추진위원장은 "청하면 신금마을에 조성된 입석산 둘레길이 김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이자 환경 친화적인 힐링명소로 거듭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